

#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with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오지혜\*, 윤혜미\*\*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Ji-Hye Oh(lovejh8816@nate.com)\*, Hyemee Yoon(hmyoon@chungbuk.ac.kr)\*\*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인관계유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충북, 충남,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ronbach's  $\alpha$ , t-test, F-test, Duncan 사후검증, Pearson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참조,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을 성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대인관계유능성의 영향력이 부모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 특히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남자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은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모애착과의 영향관계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은 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을 부분매개하고,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동성부모와의 애착 증진과, 대학당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 유능성 진작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대학생 | 부모애착 | 대인관계 유능성 | 심리적 안녕감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625 college students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liability test, ANOVA, Duncan ex-post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data were used. Study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Results also depicted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of study variables;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demonstrated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 of attachment with the same-sex par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complete mediation effect in that of attachment with the opposite-sex par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ender-conscious university policies to promote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students are greatly needed to ensur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student population.

■ keyword : | Psychological Well-being of Sollege Students | Attachment with Parents | Interpersonal Competence |

## 1. 서론

최근 개인의 삶의 질을 단순히 부정적 정서와 문제행동의 부재상태로 설명하기보다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긍정심리의 역할에 관심을 두는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최근 심리적 안녕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의 잠재적인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1].

대학생 시기는 지난했던 대학입시를 거쳐 자유와 다양한 대인관계와 지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간주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겪는 독립생활의 어려움과 낮은 사람들과의 적응, 학업과 진로 등에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요구되어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전국 대학 학생생활연구소협의회는 2011년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외로움, 불안, 우울·무기력, 분노, 자살충동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유사한 결과가 다른 연구[2][3]에서도 보고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안녕감을 비교한 연구[4]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의 안녕감 수준이 미국 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 대인관계, 장래진로, 취업 등 다양한 문제와 성인기 이행의 발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회복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5],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기능이다[6].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과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를 보여준다[7]. 대학생에게서도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활 적응은 물론 성인기로 이어질 삶의 궤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리적 안녕감은 발달과정에서 누적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애착의 중요성을 설명한 연구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8-15]. 생애초기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발달단계에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Hazan과 Shavor (1987)는 안정애착유형의 성인은 불안정애착유형에 비해 행복감, 우정, 신뢰감 등이 더 높다고 하였다[16].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17-20]도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보다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애착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가 일차적인 존재로 여겨왔으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버지와의 애착이 정신병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연구들도 있어[21],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부애착·모애착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의 기본 틀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22][23].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유형이 이후 모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4]. 김종운(2014)은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수준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22], 박상희(2014)도 전반적인 삶에서 중요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23]. Lopez (2002)는 개개인마다 다른 애착형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25], 박은희(2015)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은 타인과 높은 신뢰감, 친밀감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대학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6]. 특히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모가 많아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고 있고,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적·사회적 부적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27] 애착의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28], 사회적으로 원만한 삶을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 정신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능력이다[29].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환경 적응 및 안녕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30]. 타인과 높은 신뢰감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1].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2].

본 연구는 다양한 경제·사회환경 조건의 변화로 독립시기가 늦어져 여전히 부모의존도가 높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9-15][33]나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29-34]는 많지만 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인관계유능성은 애착의 결과변수이면서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변수이기도 하여 이 세 가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종합적 성찰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과 대학당국의 개입지점과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별 차이가 꾸준히 관찰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애착이나 심리적 안녕감 등은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5][19][22][25-27]. 또,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에서 성별 차이는 차별화된 정책 제시의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초점이 될 수 있다[35]. 특히 애착이론에서는 동성 부모와 이성부모에 대한 애착이 의미있게 논의되어 왔고, 대인관계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등도 대상자의 성에 따른 차이가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도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을 구분하여 세 연구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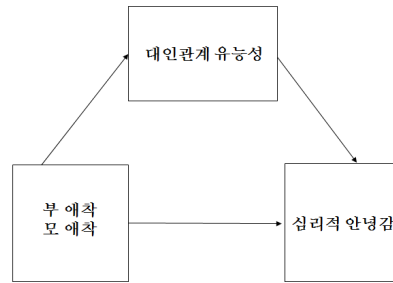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와 조사절차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육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알리미 통계 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총북, 충남, 대전 소재의 2년제·4년제 대학교 및 재적학생 수를 확인한 후, 그 비율을 표집기준으로 삼아, 총북(38%), 충남(29%), 대전(33%) 소재의 4년제 대학교 8곳에서 509명(77%), 전문대학 3곳에서 152명(23%) 등 임의표집한 총 66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지가 사용되었는데, 3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전에 동의를 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진행과정,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설문지 기재요령을 설명하다.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총 7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661부가 회수되었으나 무응답이 다수 포함된 자료 36부를 제외한 625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2.1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to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 IPPA-R(Inventory to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34]을 옥정(1998)이 한국형으로 번역·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5]. IPPA-R은 부애착과 모애착 각각 25개의 동일한 문항으로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의 세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소외감은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부애착 .93, 모애착 .92이다.

### 2.2 대인관계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은 Buhrmester(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36]를 한나리(2009)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를 사용하였다[37]. 본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각 문항은 제시된 상황들에 대해 얼마나 잘 다루고 편안하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1점(잘 하지 못한다), 2점(그저 그렇다), 3점(잘한다), 4점(매우 잘한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유능성의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2.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4]를 국내에서 김명소(2001)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7].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91이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애착, 대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학교소재지는 충북 238명(38.1%), 충남 183명(29.3%), 대전 204명(32.6%)이며, 성별은 남자대학생 248명(39.7%), 여자대학생 377명(60.3%)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237명(37.9%), 2학년 158명(25.3%), 3학년 113명(18.1%), 4학년 116명(18.6%)이었으며, 학교는 전문대학 144명(23%), 4년제 대학 480명(76.8%)의 분포를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변인	구분	명(%)
학교 소재지	충북	238(38.1)
	충남	183(29.3)
	대전	204(32.6)
	합계	625(100.0)
성별	남자	248(39.7)
	여자	377(60.3)
	합계	625(100.0)
	학년	1학년
2학년		158(25.3)
3학년		113(18.1)
4학년		116(18.6)
무응답		1(0.2)
합계		625(100.0)
학교	전문대학	144(23.0)
	4년제대학	480(76.8)
	무응답	1(0.2)
	합계	625(100.0)

## 2. 대학생의 부모애착, 대인관계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성에 따라 주요연구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학생의 성에 따라 애착, 대인관계유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은 세 가지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에서는 부애착·모애착 모두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부애착  $t=4.66, p<.001$ ; 모애착  $t=2.57, p<.01$ )을 형성하고 있었고,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으며( $t=3.53, p<.001$ ),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57, p<.001$ ).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남자		여자		t
	N	M(SD)	N	M(SD)	
부애착	244	3.75(.63)	373	3.49(.71)	4.66***
모애착	245	4.03(.53)	375	3.91(.60)	2.57**
대인관계 유능성	248	2.83(.33)	377	2.73(.35)	3.53***
심리적 안녕감	248	3.56(.52)	376	3.33(.49)	5.57***

\*\* $p<.01$ , \*\*\* $p<.001$

## 3.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3.1 변수간 상관관계

부모애착,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살펴본 결과 남자대학생은 1.12에서 1.39로 나타났으며, 여자대학생은 1.09에서 1.40의 범위로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의 독립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N=625. 남자(여자)				
	부애착	모애착	대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부애착	1			
모애착	.49***(.51***)	1		
대인관계 유능성	.26***(.24***)	.31***(.27***)	1	
심리적 안녕감	.36***(.29***)	.29***(.35***)	.50***(.51***)	1

\*\*\* $p<.001$

대인관계 유능성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이외 모두 5점 리커트 척도.

## 3.2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관계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1986)의 모형에 의거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8].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남자 (N=248)					
단계	경로	B	$\beta$	adj R <sup>2</sup>	F
1 단계	부애착	.244	.296***	.146	21.654***
	모애착	.145	.148*		
2 단계	부애착	.077	.148*	.105	15.181***
	모애착	.146	.237***		
3 단계	부애착	.193	.234***	.302	35.834***
	모애착	.047	.049		
	대인관계 유능성	.666	.422***		

\* $p<.05$ , \*\*\* $p<.001$

남자대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애착이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부애착( $\beta=.29, p<.001$ ), 모애착( $\beta=.14, p<.05$ )이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모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14.6% 설명해 주고 있으며, 남자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부애착의 영향력이 모애착의 영향력보다 컸다. 2단계에서 부모애착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예측변수인 분석한 결과 부애착( $\beta=.14, p<.05$ ), 모애착( $\beta=.23, p<.001$ )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은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10.5%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조사대상 전체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향력은 부모애착 모두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부모애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추가하여(대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beta=.50, p<.001$ )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제된 후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효과는 부애착은  $\beta=.29(p<.001)$ 에서  $\beta=.23(p<.001)$ 로, 모애착은  $\beta=.14(p<.05)$ 에서  $\beta=.04$ 로 낮아져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제한 후에도 부애착은 여전히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제한 이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는데[표 5] 결과의 의미는 Z-value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검증결과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통계량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남자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남자대학생 Sobel 검증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Z-value	p-value
부애착 → 대인관계유능성 → 심리적안녕감	2.02	.021
모애착 → 대인관계유능성 → 심리적안녕감	3.18	.000

### 3.3 여자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관계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여자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여자 (N=377)

단계	경로		B	$\beta$	adj R <sup>2</sup>	F
1 단계	부애착	→	.102	.148**	.145	31.118***
	모애착	→	.228	.282***		
2 단계	부애착	→	.069	.140**	.088	17.816***
	모애착	→	.115	.200***		
3 단계	부애착	→	.059	.086	.323	58.392***
	모애착	→	.157	.194**		
	대인관계 유능성	→	.618	.442***		

p<.05, \*\*\*p<.001

여자대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애착이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부애착( $\beta=.14, p<.01$ ), 모애착( $\beta=.28, p<.001$ )이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모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14% 설명해 주고 있으며, 여자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모애착이 부애착의 영향력보다 컸다. 2단계에서 부모애착이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예측변수인지 분석한 결과 부애착( $\beta=.14, p<.01$ ), 모애착( $\beta=.20, p<.001$ )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은 조사 대상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8.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조사대상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부모애착의 영향력 모두가 유의하였으며, 모애착의 영향력이 부애착에 대한 영향력보다 컸다.

3단계에서 부모애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추가하여(대인관계 유능성 → 심리적 안녕감:  $\beta=.51, p<.001$ )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제한 후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효과는 부애착은  $\beta=.14(p<.01)$ 에서  $\beta=.08$ 로, 모애착은  $\beta=.28(p<.001)$ 에서  $\beta=.19(p<.001)$ 로 낮아져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제한 후 부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여자대학생 Sobel 검증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Z-value	p-value
부애착 → 대인관계유능성 → 심리적안녕감	2.33	.009
모애착 → 대인관계유능성 → 심리적안녕감	3.24	.000

[표 7] 검증결과 여자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통계량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인관계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해본다.

첫째, 대학생의 성에 따라 부모애착, 대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세 가지 변수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부모애착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대인관계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애착에서의 성별 차이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안정 애착성이 더 높다고 밝힌 김경하[41], 조민경[42], 진수경[43], 진현정[4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도 비교적 뚜렷한 남녀 성역할 전형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대학생에게 통금시간 등 부모의 통제가 남자대학생에게 더 관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판단에서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40]. 하지만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19][45-47]와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부모애착을 더 높게 인식한 연구[35-37][48][49]도 있어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검증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인관계유능성의 성별 차이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 조영주[51]도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 심리적 안

녕감도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이 결과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더 높은 적응수준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43][51][52] 및 독립과 자율성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박완성[5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하위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전체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4][54-56]와도 일치한다. 즉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독립적이고 복잡한 환경 변화를 조절하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양성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와 성 정체성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애착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력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남자대학생은 부애착이, 여자대학생은 모애착이 각각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자율성 또는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강하게 작용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성부모와 동일시하고 친밀감을 가지며 동성 부모의 모습을 모방하여 성역할을 습득하고 발달한 대학생들의 성장환경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갈등이 적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동성의 부모로부터 형성된 안정애착이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이 결과는 성인초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동성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결과처럼 남자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부애착의 깊은 인과관계는 유아기부터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성화를 통한 애착관계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데,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에 속하며,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정책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애착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결과들[15][17-19][57]도 있어,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교육과 직업환경 등

을 포함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타 연구[26][58]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른 연구[59]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일수록 문제해결이나 환경적응 능력이 감소하여,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조현재[60]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대학생은 대인상황에서 불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 보다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이 더 원활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자대학생의 부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정적인 모애착이 여대생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59]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안정애착을 형성한 여대생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여대생보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보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천부경[6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타인과 애정, 친밀감, 공감을 느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대학생이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경진[63]은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수용이 높음을 밝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여 주위환경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부애

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부분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완전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대학생의 부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남자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부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완전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부분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애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모애착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남녀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가 성별차이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애착보다 대인관계유능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점은 생애발달주기 상 대학생은 청소년기 후기에 서 성인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보다는 독립적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의 유능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동시에 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형성의 차이를 이해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더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유능성이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동성부모애착의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부모애착의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전 단계 분석인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관계에서 이성 부모애착보다 동성부모애착의 영향력이 공히 더 큰 것은 일반적으로 동성 간의 대인관계의 폭과 빈도가 더 높은 사회생활의 특성상, 동성부모가 동성집단에서의



대인관계기술과 자세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관계에도 반영되어 동성부모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의 삶에서도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실증해주며, 성별 차이가 있음도 실증해준다. 즉, 남자대학생에게서는 부모애착이, 여자대학생에게서는 모애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대학생의 삶과 심리·정서적 적응에서 동성부모와의 관계와 관심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비록 성인기 초기라 할지라도 동성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영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어머니보다 역할이 구조적으로, 전통적 가치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아버지의 역할이 남아의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정책적으로 자녀의 어린시절,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로환경의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또한 이 연구는 대학당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경을 지닌 대학생의 성공적 학업성취와 자아개발을 위해 제도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인관계 유능성 진작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 중 많은 비율이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관, 하숙, 자취 등의 독립적 생활을 하게 됨을 고려할 때, 이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사회의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대학이 학생들의 학업뿐 아니라 생활상담 등 전반에 걸쳐 생활관리와 지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인데 대인관계 유능성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이를 예비대학 등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의 체계적 접근은 의미가 크다. 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다양한 동아리 및 학생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입학 후 낯선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고 대인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해야 한다. 각 대학 내에 있는 학생생활상담소 등을 활성화하여 정신건강, 고민, 스트레스, 취

업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와 용이한 접근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성의 선배를 활용하여 ‘1:1 멘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또 대인관계 유능성 프로그램은 성별이나 대학생활 참여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애착, 대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모두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자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특화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설명하였는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모애착은 물론 발달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이성친구와의 성인애착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애착관계의 경우 문화적 특성의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함께 부적응 증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과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 [2] 박영신, 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5권, 제3호, pp.399-429, 2009.
- [3] 서경현,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2호, pp.137-158, 2012.
- [4] 차경호,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pp.321-337, 2004.
- [5] C. L. Keyes, D. Shmotkin, and C. D. Ryff,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2, No.6, pp.1007-1022, 2002.
- [6] C. D. Ryff and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 [7]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pp.19-39, 2001.
- [8] 김양운, 김병석, 최희철,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미치는 감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277-1297, 2014.
- [9] 김정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197-224, 2008.
- [10] 민하영,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중상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7권, 제3호, pp.1-20, 2011.
- [11] 박현영, 강승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구조,"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43-55, 2011.
- [12]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 *한국아동학회*, 제32권, 제6호, pp.63-79, 2011.
- [13] 윤명숙, 최정민,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pp.55-78, 2011.
- [14] 정민, 노안영, "대학생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7권, 제2호, pp.373-387, 2008.
- [15] 채영문, 박수진, "대학생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공감능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6호, pp.599-613, 2013.
- [16] C. Hazan and P.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p.511-524, 1987.
- [17] 김용희,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pp.231-256, 2012.
- [18] 민성혜, 신혜원, "완벽주의 성향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5권, 제10호, pp.83-95, 2007.
- [19] 송순, 박효인,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제3권, 제2호, pp.5-25, 2006.
- [20] K. Kafetsios and G. D. Sideridis,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young and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1, No.6, pp.863-875, 2006.
- [21] V. Phares and B. E. Compas, "The role of fathers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ake room for daddy," *Psychological bulletin*, Vol.111, No.3, pp.387, 1992.
- [22] 김종운, 양민정,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283-299, 2014.
- [23] 박상희, 이남옥,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가족과 상담*, 제4권, 제1호, pp.1-18, 2014.
- [24]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사회심리학*, 학지사출판사, 2005.
- [25] F. G. Lopez, P. Mitchell, and B. Gormley,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No.4, pp.460-467, 2002.
- [26] 박은희, 최은실, "성인애착과 대학생생활적응의 관

- 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8권, 제1호, pp.57-79, 2015.
- [27] 길문주, 애착 차원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8] B. Spitzberg and W. Cupach,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2012.
- [29] 정은이, “개별성-관계성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2호, pp.97-120, 2011.
- [30] 권정혜, 육철아, 우성범, 조현,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0권, 제2호, pp.5-32, 2013.
- [31] E. Diener, S. Oishi, and R. E. Lucas,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Vol.2, pp.187-194, 2009.
- [32] 박윤정, “청소년의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정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1, pp.227-237, 2015.
- [33] 김용희,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4권, 제1호, pp.107-124, 2009.
- [34] L. M. Horowitz,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66, No.2, pp.283-300, 1996.
- [35] 김여진, 임연옥, “한국 노인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9, pp.195-209, 2015.
- [36]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37] 옥정,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38]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and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 [39] 한나리,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갈등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 반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0]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41] 김경하, 대학생의 부모 애착,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관계 모형의 남녀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2] 조민경,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3] 진수경,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44] 진현정,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45] 고영남,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pp.246-269, 2011.
- [46] 김효정,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7] 주지현, 부모애착, 이성관계 집착 및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48] 조운주,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9] M. E. Kenny and G. A. Donaldson,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8, No.4, pp.479-486, 1991.

[50] 조영주, *대학생의 애착, 자동적 사고 및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51] 옥경희,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 *학교생활연구*, 제8권, pp.21-39, 2001.

[52] 한중철, 지선근,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1권, 제1호, pp.109-130, 1999.

[53] 박완성,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제14권, 제2호, pp.104-125, 2002.

[54] 신효식, 이선정,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과 자기이해 변인에 관한 연구: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05-133, 2012.

[55] 이옥형,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29-57, 2012.

[56]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한국 대학생의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3권, 제3호, pp.33-62, 2012.

[57] 정민, 이미라, 노안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7권, 제4호, pp.1023-1038, 2006.

[58] 조주원,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와 모자화 반응특성과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제20권, 제4호, pp.711-730, 2013.

[59] 이은지, 서영석, "불안전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기자비와 낙관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제2호, pp.413-441, 2014.

[60] 조현재, 김정미, "대학생의 애착안정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01-222, 2011.

[61]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3호, pp.347-363, 2009.

[62] 천부경, 양난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3호, pp.719-733, 2013.

[63] 김정진,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저 자 소 개

오 지 혜(Ji-Hye Oh)

정희원



- 2016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석사)
- 2016년 7월 ~ 현재 :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관심분야> : 아동복지, 아동학대

윤 혜 미(Hyemee Yoon)

정희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0년 1월 : 미국 Cornell대학교(철학박사)
  - 1992년 3월 ~ 1999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교수
  - 1999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 휴먼서비스 직 소진과 이차 외상